

타이어 노화와 사용수명

지난 봄 주요 자동차 제조사인 Ford사와 Daimler Chrysler사가 '정상적으로 6년 사용된 타이어는 교체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운전자 매뉴얼 등에 삽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래, 타이어 노화와 수명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수 자동차 제조사인 Ford와 Daimler Chrysler사가 자체 실험을 근거로 '사용한 지 6년 된 타이어는 교체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소비자들에게 명시하겠다는 발표 이래, 지난 9월 26일 일본자동차타이어공업협회(Japan Automobile Tire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장기간 경과한 타이어의 점검, 교환에 대한 권장규정을 발표했다.

JATMA의 권장규정은 '사용 개시 후 5년 이상 경과한 타이어에 대하여는 타이어 판매점 등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제조 후 10년 이상 경과한 타이어는 교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법적적인 규정이 아니며 단지 자율적인 판단기준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JATMA는 02년부터 장기간 사용한 타이어에 대한 안전 계도 활동을 시작하여, 03년에는 종전의 '장기간 사용한 타이어의 점검'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 개시 후 5~7년 경과한 타이어의 점검'이라는 구체적인 연수를 명시하여 리플렛 등을 통해서 이들 타이어에 대하여는 타이어 판매점 등에서 점검을 받도록 권장했다. 그 후 03.12월에 일본국민생활센터로부터 "사용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04.6월부터 시행된 소비자 기본법 영향 등으로 인해 타이어업계에서도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져 금번에 "JATMA Recommendation"으로서 자율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타이어 제조사인 브리지스톤사는, 모기업인 브리지스톤 일본을 따라서 미국 BFS(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사도 이 같은 JATMA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는 입장

을 10월에 발표했다. BFS측은 아직 이 같은 자율기준을 뒷받침할 어떤 과학적, 기술적 데이터도 없다는 측면에서는 '미국 교통부 산하기관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타이어 노화에 관한 실험적 자료를 마련하여 소비자 단체 등에 공표해야 한다'는 미국 고무 협회(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어떤 자율적 기준 마련이 타이어 소비자들에게 타이어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타이어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JATMA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타이어는 정해진 기한 이후에는 교체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일반적으로 미국 타이어 제조사들에게는 거의 금기에 가깝다. BFS의 결정과는 달리 일본 주요 타이어사인 도요 타이어 미국은 현재로서는 JATMA의 자율기준을 따르기보다는 RMA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BFS의 결정에 대한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단체들의 입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판단 편의를 위해서 타이어에 엄격한 유효기한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RMA를 비롯한 타이어 산업 대표들은 지난 Ford사와 Chrysler사의 6년 교체 권고안 발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NHTSA는 소비자 단체에게 타이어의 노화와 사용기한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험적 자료를 연구하여 발표하라고 요청했지만 NHTSA측은 아직 신규 타이어 안전 기준에 첨부

할 노화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

미국 타이어 협회(Tire Industry Association)는 타이어의 노화한계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효기한을 정하는 것은 타이어 딜러들에게 주요한 재고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유효기한으로 말미암아 사용가능한 많은 타이어들이 불필요하게 폐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IA측은 지난 10월 유효기한 표기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고

RMA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반대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타이어의 사용수명을 정하는 문제는 JATMA의 권고규정 발표로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큰 주장의 엇갈림 속에 타이어 사용기한에 대한 "자율적인 판단 기준" 제시가 그 절충안이 될 수 있을지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미국 「Tire Business」05.11.21, 일본「주간 타이어신보」05.10.3, 일본「고무호치(報知)신문」05.10.3〉

